

나락덕후 세미파이널 모의고사 세계사 영역 정답 및 해설

세계사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	㉡	㉢

예상 등급컷(수능)

1등급	50점
2등급	47점
3등급	44점

총평

이번엔 진짜 평가원같이 내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난이도 조절하느라 좀 많이 쉬워진 감이 있긴 하지만 문제가 깔끔하게 나온 거로 만족한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를 수능 기출로 비유하자면 딱 2020학년도 수능이라 할 수 있겠다. 9번 같은 킬러문제에 3개 정도의 중상 문제가 포진하고 있다. 9번의 체감 난이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1컷 50에서 1컷 47, 2등급 블랭크가 날 것 같다.

중상 문제는 그리스 독립 전쟁이 전개된 시기를 묻는 2번, 당나라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묻는 6번, 유고슬라비아 문제지만, 소련으로 착각할 수 있는 18번이라 생각한다.

난이도 분류: [날먹/중/중상/준킬러/킬러]

정답 및 해설

1번 이집트 문명 [정답: ②]

난이도: 날먹

[!]

연계로 날먹하려 했는데 의외로 만들기 힘들었다.

나일강, 파라오를 통해 (가)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집트 문명에서는 태양력과 60진법이 사용되었다.

[?]

- ①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바빌로니아)
- ③ 크레타섬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고대 그리스)
- ④ 갑골에 점복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상)
- ⑤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를 건설하였다. (인더스)

▶ 24059-0157

1 밑줄 친 '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명 사람들은 나일강과 그 유역에 사는 여러 동물을 특정한 신의 화신 혹은 신이 타고 다니는 존재라 여기고 숭배하였다. 악어, 하마, 매, 양, 자칼 등은 그 대표적인 동물이다. 특히 악어의 경우 나일강의 범람을 관장하는 신인 소베크(세베크)의 화신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위와 같이 이 문명 사람들은 악어를 섬기는 모습을 파피루스에 남겼으며, 악어를 미라로 만들어 매장하기도 하였다.

- ① 사자의 서를 제작하였다.
- ②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③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였다.
- ④ 점을 친 내용을 갑골에 새겼다.
- ⑤ 모헨조다로 등의 계획도시를 건설하였다.

2번 그리스 독립전쟁 [정답: ③]

난이도: 중상

[!]

2번부터 근대여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생각보다 풀만했던 문제이다!

50대 행적에 나와있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군대를 파견',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개입'을 통해 밑줄 친 '반란'이 그리스 독립전쟁임을 알 수 있다.

그리스 독립 전쟁(1821~1829)

먼로 선언은 1823년에 발표되었다.

[?]

- ① 메테르니히가 실각하였다. (1848)
- ②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되었다. (1861)
- ④ 루이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였다. (1852)
- ⑤ 영국에서 제1차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1832)

3번 춘추전국시대 [정답: ④]

난이도: 중

[!]

상양을 모르면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이다.

상양을 알았더라도 진시황 시기로 착각하고 ③을 골랐을 수도 있다! 상양은 춘추전국시대에 활동했던 법가 사상가이다.

상양을 통해 밑줄 친 '개혁'이 추진된 시기가 춘추전국시대라는 것을 확정지을 수 있다. 진나라, 위나라는 부수적인 단서이다. 상양이 활동했던 시기에 전국시대가 전개되었다.

[?]

- ① 균전제가 실시되었다. (북위~당)
- ② 양세법이 시행되었다. (당~명이긴 한데 당 이후론

안 물어본다.)

- ③ 만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진 진시황)
- ⑤ 9품중정제가 시행되었다. (위진 남북조 시대)

4번 알렉산드로스 제국 [정답: ①]

난이도: 날먹

[!]

25 6모에서 충격을 받았던 당신의 심신을 달래 주기 위해 힐링 문제를 준비했다. 크~ 너무 쉽다.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내용을 통해 (가)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임을 알 수 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벌인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 ② 호르텐시우스법을 제정하였다. (로마 공화정)
- ③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하였다. (스파르타)
- ④ 클레이스테네스가 500인 평의회를 설치하였다. (아테네)
- ⑤ 키루스 2세가 원통에 칙령을 새겨 반포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5번 에도 막부 [정답: ⑤]

난이도: 날먹

[!]

진짜 수특급 난이도를 가진 문제이다. 아마 대부분 스속 보고 풀었을 것이다. 밑줄 친 '이 제도'는 산킨코타이 제도이다. 에도 막부는 산킨코타이 제도를 시행하였고, 말기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

- ① 일본서기를 편찬하였다. (나라 시대)
- ②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였다. (헤이안 시대)
- ③ 명과 감함 무역을 전개하였다. (무로마치 막부)
- ④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메이지 정부)

6번 사산 왕조 페르시아 [정답: ④]

난이도: 중상

[!]

2등급과 3등급을 가리는 문제가 등장했다. 단원 통합형에 취약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사산 왕조나 파르티아나를 놓고 찍었을 것이다. (사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푸는 방법

1. 수도 크테시폰으로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답 선상에 놓는다.
2. 안서 도호부를 설치한 왕조는? 당나라

당나라 시기에는 이란 지역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

- ①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무굴 제국)

정답 및 해설

- ②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하였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 ③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바스 왕조)
- ⑤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였다. (파르티아)

7번 영락제와 쿠빌라이 칸 [정답: ④]

난이도: 날먹

[!]

이것도 수능 완성 연계 문제이다.

4

[?] (가, 나)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난장을 수도로 왕조를 개칭한 쿠빌라이 칸이 (가) 이가 베이징 천도를 단행한 것은 장남 정권이라는 코리요를 배어 날 조지였다. 물론 이 때문에 당시 중앙아시아 경제 중심지가 은비시아 강남과 베이징을 잇는 대운하의 활용이 필요하였다. 그는 재원보다 약 50만 원의 수도를 페르세폴리스 정교로 남겨놓았으며, 육로로 활용했던 (나) 을 통해 왕조는 정교로 되었다. 베이징을 수도로 정할 때 쿠빌라이 칸은 대운하의 관공을 단행했다는 공로가 있다. (가) 은 남북으로 일원하는 오랜 기간 단행되었던 책봉-조공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이는 두 차례 일원 원정을 단행한 (나) 에 비해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가) - 사교관세를 반납하였다.
- ② (가) - 페르세폴리스를 재건하였다.
- ③ (나) - 난장을 정복하였다.
- ④ (나) - 정교의 황제를 피력하였다.
- ⑤ (가)와 (나) - 대군 태위상을 설치하였다.

지금 보니까 그냥 문항을 축소한 것 같다. 베이징 천도로 (가)가 명 영락제임을, 대도 천도로 (나)가 원 쿠빌라이 칸임을 알 수 있다.

[?]

- ① (가) - 재상 제도가 폐지되었다. (명 홍무제)
- ② (가) - 일조편법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명 만력제)
- ③ (가) - 전연의 맥양이 체결되었다. (요)
- ④ (나) - 두 차례 일본 원정이 단행되었다. (원 쿠빌라이칸)
- ⑤ (나) -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원 말기)

8번 앙코르 와트 [정답: ②]

난이도: 중

[!]

4.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의 일부 반부고 사찰이 있기 때문에 인도 서아시아에 나오는 양식을 가진 구조물이 있습니다. 내용은 불교 사찰으로 사용되어 불교 문화의 요소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 ① 크메르족이 세웠다.
- ② 자와섬에 축조되었다.
- ③ 수코타이 왕조가 건설하였다.
- ④ 란드라굽타 2세가 건립하였다.
- ⑤ 푸드보비나트라가 세워져 있다.

무려 5년 만에 돌아온 앙코르 와트 문제이다. (위 문제는 19수능)

크메르족이 세운 나라(앙코르 왕조)에서 건립한 사원이라는 점을 통해 (가)가 앙코르 와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앙코르 와트는 후대에 불교의 사원으로 쓰이기도 했다.

[?]

- ① 보르부르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찬드라굽타 2세는 굽타 왕조의 황제이다.
- ④ 샤 자한은 무굴 제국의 황제이다.
- ⑤ 아스카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황제이다.

9번 후우마이아 왕조 [정답: ②]

난이도: 킬러

[!]

케이스를 두 번 분류해야 하는 킬러 문제이다. (지리 추론 + 아바스 왕조 시기 상황)

요약

1. 대본에 등장하는 칼리프의 국가는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를 통해 알 수 있음)
아바스 왕조와 대립했다는 점을 통해 파티마 왕조, 후우마이아 왕조로 추릴 수 있음.
2. 카를루스 황제의 침입을 막아 냄 → 프랑크 왕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는 우마이아 왕조, 후우마이아 왕조임.
3.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바스 왕조와 대립하며 건설된 나라는 후우마이아 왕조이다.

후우마이아는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

- ① 데브시르메 제도를 시행하였다. (오스만 제국)
- ③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립되었다. (피티마 왕조)
- ④ 홀라구에 의해 수도가 점령되었다. (아바스 왕조)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우마이아 왕조)

10번 교회의 대분열 [정답: ⑤]

난이도: 중

[!]

①만 보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실상 날먹 문제이다! (연표라 중간도로 설정하였다.) 교회의 대분열 (1378~1417) 콘스탄츠 공의회 (1414~1418)

[?]

- ① 장미 전쟁이 발발하였다. (1455)
- ② 자크리의 난이 일어났다. (1358)
- ③ 보름스 협약이 맺어졌다. (1122)
- ④ 존왕이 대헌장을 승인하였다. (1215)

11번 강희제 [정답: ④]

난이도: 중

[!]

4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발해를 멸망시켰다.
- ②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③ 방구르족이 건국하였다.
- ④ 황소의 난으로 쇠퇴하였다.
- ⑤ 건륭의 침입을 받아 천도하였다.

이것도 수완 연계 문제이다.

투항하여 변왕이 된 세 명의 한족 무장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는 점을 통해 밀줄 친 '짐'이 강희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희제는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진압하였다.

[?]

- ① 남송을 멸망시켰다. (원 쿠빌라이 칸)
- ② 국호를 청으로 바꾸었다. (홍타이지)
- ③ 맹안·모극제를 시행하였다. (금)
- ⑤ 팔기제를 바탕으로 부족을 통합하였다. (누르하치)

12번 오스트리아 [정답: ③]

난이도: 중

[!]

수도 빈으로 오스트리아임을 알 수 있는 사실상 날먹 문제이다. 원래 좀 어렵게 내려 했는데 참았다. 오스트리아의 요제프 2세는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

- ① 라인 연방의 일원이었다. (틀린 설명이다.)
- ②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에스파냐)
- ④ 콜베르를 등용하여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
- ⑤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영국)

13번 신해혁명 [정답: ⑤]

난이도: 중

[!]

변란 이후 공화제가 실시되었다는 점을 통해 밀줄 친 '변란'이 신해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① 남녀평등과 토지균분을 내세웠다. (태평천국 운동)
- ②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아편전쟁)
- ③ 백련교 계통의 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의화단 운동)
- ④ 증국번, 이홍장 등 한인 관료들이 주도하였다. (양무운동)

14번 이탈리아 [정답: ⑤]

난이도: 날먹

[!]

만들고 보니까 너무 쉽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참전했다는 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북쪽에 접했다는 점을 통해 (가)가 이탈리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는 아도와 전투에서 메틸리크 2세의 군대에 패배하였다.

[?]

- ① 자와섬에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였다. (네덜란드)
- ② 브레스트리트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맹국 - 소비에트 러시아)
- ③ 미국과 필리핀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다. (에스파냐)

정답 및 해설

- ④ 호르무즈, 마카오를 교역 거점으로 삼았다.
(포르투갈)

15번 벵골 분할령 [정답: ④]

난이도: 중

[!]

벵골 분할령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이다. 인도 국민 회의는 영국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면서 반영 단체로 돌아섰고, 벵골 분할령을 기회로 세력을 확장 하려던 이슬람교도들은 영국의 후원을 받아 인도 국민 회의에 대항하였다.

[?]

- ①, ②, ③, ⑤는 모두 틀린 설명이다.

16번 러시아 [정답: ③]

난이도: 날먹

[!]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다는 점, 스웨덴과의 전쟁(북방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통해 밀줄 친 '이 국가'가 러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① 낭트 칙령이 폐지된 배경을 파악한다. (프랑스)
②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된 계기를 알아본다. (영국)
④ 바스쿠 다 가마의 항해를 지원한 목적을 찾아본다.
(포르투갈)
⑤ 프랑크푸르트 국민 의회가 소집된 원인을

17번 벨기에 [정답: ②]

난이도: 날먹

[!]

17.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그림은 유럽 열강 중 하나인 이 나라의 국왕 레오폴트(레오폴트) 2세가 아프리카인들에게 행한 기혹한 착취를 풍자한 것이다. 그는 고무, 상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아프리카인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 하는 과정에서 학살을 자행하였다.

- ① 파소다에서 영국과 충돌하였다.
② 모로코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③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에 패배하였다.
④ 줄루족과 벌인 이산들화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⑤ 프랑스 등과 함께 콩고강 일대를 분할 지배하였다.

이것도 19수능 기출 반복이다. 게다가 수능 완성도 연계되어 있다.

16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4059-0212

배틀린 회의는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이다. 특히, [가]의 레오폴트 2세는 이 회의의 통해 콩고를 개인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할 수 있었다. 유럽 열강이 '배틀린 회의'에 관한 일반 조항에 서명함으로써 그 의 콩고 지배를 사실상 지지하였기 때문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열강은 자유 무역을 전제로 레오폴트 2세의 콩고 지배에 동의 하였으며, 그는 1885년에 자신의 개인 식민지를 콩고 독립국 이라 명명하고 이 거대한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다.

- ① 폴란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② 파소다에서 영국과 충돌하였다.
③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④ 19세기 전반에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⑤ 청일 전쟁 이후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만들고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비슷해졌다. 콩고를 식민지를 삼았다는 점, 레오폴트(레오폴트) 2세가 통치하는 국가라는 점을 통해 (가)가 벨기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벨기에는 7월 혁명의 영향으로 독립하였다.

[?]

- ① 카보우르가 재상으로 활동하였다. (이탈리아)
③ 아라비 파사의 혁명을 좌절시켰다. (영국)
④ 앙골라, 모잠비크 등을 지배하였다. (포르투갈)
⑤ 헤레로족이 일으킨 봉기를 진압하였다. (독일)

18번 유고슬라비아 [정답: ①]

난이도: 중상

[!]

문제 만들때는 무난하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기 까 연방만 보고 소련을 고를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 해서 난이도를 중상으로 설정했다.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만 캐치하면 (가)가 유고슬라비아라는 것을 무난하게 알 수 있다.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제1차 비동맹 회의가 개최되었다.

[?]

- ②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독)
③ 바덴사가 자유 노조 운동을 이끌었다. (폴란드)
④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창설하였다. (소련)
⑤ 하벨의 주도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19번 프로이센 [정답: ④]

난이도: 중

[!]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새로운 연방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였다는 점을 통해 (가)가 프로이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을 차지하였다.

[?]

- ① 농노 해방령을 반포하였다. (러시아)
② 폴란드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영국)
③ 영국과 파소다에서 갈등을 빚었다. (프랑스)
④ 사보이(사부아) 지역을 프랑스에 할양하였다.
(사르데냐)

20번 평화 10원칙 [정답: ①]

난이도: 날먹

20. 밑줄 친 '이 원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이곳 빈담에서 우리 20개국 대표들은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수기르는 대동령의 계약 연설로 시작한 회의는 일주일간의 논의 끝에 마침내 이 원칙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① 내정에 대한 불간섭
② 영토 및 주권의 존중
③ 자유 무역 체제의 강화
④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안보 체제의 배제
⑤ 국제 연합 헌장에 일정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

빈담 문제인데 평화 10원칙 자체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정답 선지가 너무 쉬워서 날먹 문제가 되어 버렸다. 반등 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 발표되었다.

[?]

- ① 평화 14개조에 대한 설명이다.

평화 10원칙

1.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원칙의 존중
2.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전의 존중
3. 모든 인종과 국가 간 평등 인정
4. 타국의 내정 간섭 금지
5.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의 존중
6.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안보 체제 배제
7. 무력 침략·위협 부정
8.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9. 상호 이익과 협력의 촉진
10. 정의와 국제의무의 존중

[정리]

날먹: 7개

중: 9개

중상: 3개

준킬러: 0개

킬러: 1개